



학사장교 입교를 미루고, 졸업 유예를 하며 떠난 대만대학교에서의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났습니다. 해외에서 혼자 지내며 평소라면 얻지 못했을 감정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막연히 있던 해외 생활에 대한 동경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화를 위한 영어도 많이 쓰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커다란 재미가 있었습니다.

중국어 수업은 1단계를 들었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진도가 좀 느려서 지루한 감이 있으나 재미는 있었습니다.

Exploring Taiwan 자연 환경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지루한 감이 있었으며 자잘한 보고서와 Field trip이 있어서 재미는 없고 귀찮은 수업이었습니다.

대만 학생들은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운동, 동아리 '활동'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술집도 별로 없고 밤 12시가 넘으면 갈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또 축구 수업에서 놀랐던 점은 여학생들이 40%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캠퍼스를 걷다 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운동복 차림의 학생들이 자주 보입니다.

Kpop 댄스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대만 친구들이 먼저 나서서 말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국어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가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보니 한국인 친구가 오면 관심 갖고 잘 대해줍니다.



동아리 공연

교환학생들은 저처럼 보통 Shui yuan 기숙사에 배정이 되는데 기숙사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됩니다. NTU 이메일을 자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저는 중국어 튜터링 수업에서 만난 튜터 친구와 여행도 다니고 탁구도 치고 밥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튜터링 수업

아래는 대만생활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몇몇 항목은 특히 제가 미리 알았다면 참 편하고 좋았을 것 같았던 팁입니다. 다른 후기 글과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만 추렸습니다.

교환학생 준비

비자 발급 은 서울과 부산 두 곳의 대표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1학기 교환학생의 경우 비자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체류 중 다른 나라로 출국(우리나라도 포함)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복수 비자(또한 무료)로 발급받는다. 180 day 연장 불가 복수비자를 받으면 현지에서 번거롭게 연장할 필요가 없다.

택배 를 미리 기숙사로 보낼 수 있다. 출국 시 번거로움을 줄이고 항공기 수하물 비용도 아낄 수 있다. EMS의 경우 3일 정도(항공우편의 2배정도), 항공은 2주, 배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공과대학 교환학생 vs 국제협력부 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다르다. 등록 과정과 버디 프로그램 등의 정보는 담당자와의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즐거운 대만 여행'*과 *'아름다운 섬 대만 포모사'* 네이버 카페는 각각 여행, 생활정보 및 중고 물품 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포모사의 경우 미리 출석을 하여 등업 요건을 만족시켜야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겨울*이라면 밤에 생각보다 매우 춥다. 구글이 보여주는 기온만 믿으면 안되고, 습도가 높은 지역이라 동절기에 매우 추우나 온열기기가 없다.

국제면허증 을 준비하면 저렴하게 스쿠터를 빌릴 수 있다. 없어도 전기바이크를 빌릴수 있지만 40%정도 더 비싸다.

정착하기

*오리엔테이션*은 유용한 정보가 많다.

*방청소*가 필수인데 청소기를 비롯한 웬만한 물건은 프론트에서 빌릴 수 있다. 먼지가 매우 많아 물걸레질이 필요했다.

기숙사 디파짓 은 도착하고 몇 일 내에 송금해야 하는데, 은행이 공관 역사 내에 위치한다..

유심 은 구글맵에 'chungwha telecom'을 검색해 공관역 근처에 있는 통신사에서 구입 가능하다. 1학기 내내 마음껏 데이터를 썼는데 10만원이 안 들었다.

생활

생활의 문제 가 생기면(변기 막힘, 피자 주문 등)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부탁하면 잘 해결해 준다.

편의점 의 도시락은 가격대비 매우 맛있으며 편의점마다 만능기계가 있는데 인쇄, 데이터 충전, 버스표 예매 등을 할 수 있다.

생활용품 은 캠퍼스 내의 '샤오푸(小福)'의 3층에 생협 마트가 비교적 저렴하다.

비용 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겠지만, 값싸고 맛있는 음식도 매우 많고 하루 만원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당시역(捷運頂溪站) 근처의 한국 거리에서 김치 등의 한식 재료를 살 수 있다. 까르푸에도 있지만 3~4배 저렴하다.

버스 상하차시 교통카드 태그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다. 버스를 탈 때 주변을 잘 둘러보면 '上下' 전광판이 있다. 상차시 태그를 해야할지, 하차시 태그를 해야 할 지 알려준다.

떠나기

*등록 해지(Deregistration)*을 해야 한다고 교환학생들에게 나눠준 자료에 나와있지만, college-level 교환학생(vs by국제협력부)은 해당사항이 없고, 기숙사 check-out 과정만 잘 따르면 된다.

청소 는 굉장히 간간하게 검사한다. 본인은 화장실에 비치된 솔로 몇 시간을 걸려서 묵은 곰팡이들을 박멸했으나 아는 형은 매직 블록을 쓰더니 수 십분 정도로 훨씬 수월하게 해결했다.

전기 는 거의 아껴 쓰지 않았는데 총 1500TWD 정도 썼다.. 전기카드는 충전 시 500TWD 단위로만 가능하며 체크 아웃시 디파짓과 함께 잔금을 돌려준다.

교통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60~70% 수준인 것 같다.

도움이 되었던 블로그 & 후기

1. <http://m.blog.naver.com/dotori0316/220922680069#>
2. <http://blog.naver.com/arashinoohno/220739635520>

3. <http://blog.naver.com/lhj9601/220795585109>
4. <http://blog.naver.com/sojin1602/220813259835>
5. <https://oiasystem.ntu.edu.tw/IncomingExchange/www/experience/105/incoming/011973.pdf>